

## 大學生の 集團活動 활성화

南 世 鎮

(서울大 社會福祉學科)

### 1. 序 言

自發的이고 民主的인 集團活動의 경험은 人間이 社會的 機能을 수행·발전시키는 力量을 向上함에 不可缺한 것이며, 특히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 形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靑少年기의 集團活動 經驗이 지닌 社會福祉의 그 리고 教育的 價値에 비추어 보면 課外活動(extra curricular activity)이라는 用語는 그 重要性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認識은 一般的으로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教育 風土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피하고 경원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로지 大學 合格을 위한 공부만에 모든 것을 바치고 餘他의 活動은 일체 억제해 온 결과 大學生은 '영악한 利己主義者'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主觀없이 방황하는 젊은이' 아니면 '판별력도 없이 단순한 黑白論理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學生'으로 취급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오랜 學生 데모에 시달려 온 當局은 이제 學園事態의 發生·維持·承繼를 소위 문제 씨클과 直結시키게 되었고 이들의 活動을 억제시키는 일에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외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견제된 효과가 있는 듯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더 활발하

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권장되어야 할 건전한 집단 활동조차 이의 영향을 받아 學校 當局의 指導와 保護를 벗어나게 되었다(大學生の 63.8%가 과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70.5%가 校外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學校의 지도권 밖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신입생 가운데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씨클 활동이라고 응답한 수는 3.2%에 지나지 않으나, 대학 재학중 과외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0%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씨클과 과외 활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前者는 기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씨클 활동의 억제 정책은 學校와 學生間의 관계에 距離를 조성하는 不信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當局에 대한 욕구 불만의 목록에 새로운 項目을 추가하는 결과밖에 다른 효과는 없게 되었다.

이제 小我的 教育 風土에서 벗어나야 되고 좁은 안목의 임시변통적인 政策은 쇠신되어야 한다. 이는 各級 學校에서 일어나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大學에서만이라도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大學은 專門知識을 갖춘 人格者를 길러내고 각 分野의 指導者를 育成하는 곳이다. 眞理를 찾고 學問을 研磨하며 知識을 전수하는 동시에 人格 陶冶의 教育을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

다. 또한 이를 수행해 나감에 필요한 福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集團活動은 全人教育의 手段이기도 하며 大學生의 社會的 必要를 충족시켜 주는 福祉 서비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大學生은 여러 가지 이유로 全人格의 教育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거나 매우 不足한 상태에서 成長해 왔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教育的·福祉的 欲求가 누적되어 있다. 늦게나마 大學生活을 통해서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人格者로 發展되어 나갈 수 있다.

이 같은 全人教育의 目標을 民主社會를 유지·발전시키는 책임 있는 市民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集團活動과의 關係를 밝힌 다음 오늘날의 大學生이 가진 社會的 必要를 찾아 이에 적응하는 集團活動 프로그램을 例示하고 있다.

## 2. 民主的 市民과 集團活動

大學은 民主社會를 유지·발전시키는 市民을 養成하는 教育의 場이라 했다. 民主的 市民으로 길러내기 위한 教育은 理致를 理解하고 터득하는 學習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民主的 市民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民主的이란 말은 推象的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實際上의 行爲를 지적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고 개념상의 理解 水準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民主的이다 또는 아니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안다는 사실과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행위를 반복해 보는 學習 機會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行爲가 익숙해지고 內在化되고 관습화될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어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물론 個人에 따라서는 아는 것을 곧 行動으로 옮길 수 있는 強力한 意志와 力量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實踐的 經驗이라는 교량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명한 學習理論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는 사실로

도 立證이 된다.

大學生은 어느 계층이나 집단보다 知的 水準은 높다. 이들에게는 民主主義 社會의 바람직한 市民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民主市民이 지녀야 할 資格을 項目으로 나누어 본다면 ① 自我確立, ② 他人에 대한 존경, ③ 협동, ④ 參與와 責任遂行, ⑤ 合理性과 論理性이라 할 수 있다.

### 1) 自我確立

自我確立은 自我의 發見·受容·形成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他人과 구별되는 自己를 찾고 이 고유성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를 핵심으로 自我를 發展시키 나가는 과정에는 他人과의 關係가 필수적 조건이 된다. 이 관계를 통해서 비추어진 自己의 像을 발견하고 다양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영된 自己의 파편들을 모아 自我를 형성하게 된다. 他人과 비교해봄으로써 自己의 固有性을 인지하게 되며 自己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통해 他人과 自己가 공히 受容하는 自我를 확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경험과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이때의 自我의 개념 속에는 主體性·理性·自律性·意志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2) 他人의 尊敬

민주주의에 깔린 기본적 가치관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信念이다. 人間은 원래 自己中心의 이다. 他人에 대한 존경심은 他人의 존재가 自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한층 강화된다. 自己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성취함에 유익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他人의 欲求나 目標 가운데는 自己 혼자만의 노력이나 힘으로 충족되거나 성취되지 못하고 他人과의 相互依存的 關係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자유롭게 自己의 意思를 표현하고 남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는 집단 분위기 속에서 共同目標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집단 구성원이 함께 경험함으로써 他人에 대한 존경심이 실제로 배양된다.

### 3) 協同

사람마다 서로 다른 意見을 가지고 있으며 他人의 主張이 나의 그것과 다르긴 하지만 合理性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의견과 주장 속에서 서로가 합의하는 바를 찾고 이를 기초로 相互協同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면서 相反된 意見의 兩立性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비록 自己의 主張이 관철되지 못하였지만 민주적 방법에 의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된다. 집단 구성원간에 협동 작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동료 관계가 발전되며 성취감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4) 能力에 맞는 參與와 責任遂行

集團活動 過程에서 구성원에게 할 일이 주어지고 이를 받아 수행해 나가는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力量에 맞는 일을 스스로 찾아 이를 완수하는 실천력이 배양된다. 또한 집단의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결정된 바에 대한 使命感을 갖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集團이 처한 상황과 요구가 自己의 能力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집단 구성원과 자신이 공히 합의하게 되면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위를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경험도 하게 된다. 상황이 변하고 요구가 달라지면 다른 집단 구성원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때에는 훌륭한 협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육도 받게 된다.

#### 5) 合理性과 論理性

合理的이고 論理的인 논쟁을 하고 갈등을 가진 채 正常的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力量은 集團 속에서 행해지는 민주적 토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배양된다. 자유로운 토론에서 自己의 主張을 펴고 다른 사람의 主張에 대해 논박할 근거를 찾고 여러 사람의 반응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多數의 구성원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바를 따르게 되는 경험을 쌓게 되면 論理的인 思考와 合理的인 態度뿐만 아니라, 公과 私를 그리고 퍼스널리티와 아이디어를 실천상에서 구분하는 힘도 기르게 된다. 민주적이고 자유로

운 토론의 價値를 강력하게 主張하는 사람은 갈등을 포용하는 力量도 이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을 통한 학습은 一般的으로 家族, 놀이 집단, 이웃, 學校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나 집단 활동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學生이 성장해 온 배경과 현재 한국 사회의 특성 그리고 大學生의 현실적 필요 등을 감안해 본다면 大學에서의 意識的인 集團活動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要請된다고 하겠다.

### 3. 大學生의 成長 背景과 現實

현재의 大學生과 앞으로 大學에 들어올 靑年들이 태어나고 成長할 곳은 核家族化된 현대 가정이다. 傳統的인 社會의 擴大家族 時代에 있어서는 兄弟姉妹와 친척의 수도 많았고 이들과의 來往도 빈번하였으며 祖父와 祖母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家族을 中心으로 多樣한 人間關係가 형성되고 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家族의 傳統的인 機能이 수행되는 상황에서는 家族集團 內部에서 일어나는 力動的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代 核家族에 있어서는 그 數나 機能面에서 매우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원에게 필요한 만큼의 集團活動을 대신할 경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환언한다면 오늘날의 大學生은 가족 成員간의 인간 관계나 家族集團의 活動이라는 면에서 매우 제한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父母는 民主主義를 生活 속에서 實踐한 경험이 없는 世代이어서 종종 自由放任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뿐 이들이 올바른 民主的인 教育을 家庭에서 실시한다는 기대는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大學生들은 이웃의 소꿉동무나 同輩集團과 놀이를 함께 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특히 中間 또는 大都市에서 成長한 學生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家庭이나 이웃에서 얻지 못한 集團活動의 經驗을 유치원이나 國民學校에 들어가서 갖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공부, 進學, 出世 위주의 教育 風潮가 이미 이곳에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舍人教育이란 말은 허울일 뿐 學生을 평가하는 基準은 오로지 學業 成績이며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성적표에 나타나는 수·우·미·양·가로 매겨지는 科目만이 중요하며 그 이외의 기록은 實際에 있어 아무런 價値도 없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이끌어 가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잘 한다는 평가는 성적표 한 구석에 마련된 빈 칸을 매꾸는 형식일 뿐 관심의 대상조차 되질 않는다. 이러한 풍토에서 父母도 선생님도 그리고 學生 本人들도 소위 課外活動을 기피하게 된다.

집단 활동을 기피하고 억제하는 경향은 中學校와 高等學校에서 더욱 심해진다. “이젠 너도 中學生이구나, 정신차려라”, “별써 고등학교냐? 큰일났다”는 父母, 先生, 社會의 태도는 學生들의 集團活動을 根源의으로 봉쇄해 버리고 만다. 어쩌다가 敎會 行事나 청소년 단체 또는 학교의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비교적 경제 형편이 좋고 이해심이 있는 父母가 여름방학 동안 3박 4일의 캠프 프로그램에 보내 주거나 시골의 친척 집에 가서 사촌이나 목촌과 어울리는 정도가 고작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效果面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靑少年團體의 집단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中·高等學生의 수가 매우 限定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人格 成長을 위한 학습과 경험의 最適期가 初·中·高等學生 시절이며 自我 形成 시기가 高等學校 시절이라는 主張이 옳다면 大學 新入生은 그야말로 民主市民의 資格이라는 면에서는 낙제 점수에 가까운 수박에 없다.

이렇게 성장해 온 젊은이가 大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시험 지옥, 공부 지옥, 경쟁 지옥에서 해방되어 그토록 갈망하던 大學에 入學해 보면 이들의 희망과 기대는 하루아침에 환멸과 실망으로 돌변하고 만다. 이들의 보람찬 大學生活의 꿈은 오늘날 大學이 지닌 여러 가지 現

實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된다.

가득찬 호기심을 가지고 참석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김빠진 맥주와 같고, 강의실은 市場 바닥을 방불케 하고, 국어·영어 시간은 고등학교 때보다 못한 것 같고, 교양 과목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지루하기만 하고, 밥먹을 곳이나 다음 강의를 기다리는 동안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싶은 課外活動은 아무리 찾아봐야 있는 것 같지 않고, 가입하면 당장 큰 일 날 것 같은 씨름은 자꾸만 유혹을 하고,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도 교수 선생님은 어렵기만 하고, 애써 참석한 1박 2일의 科 M.T는 독한 소주와 선내 나는 막걸리 그리고 정치 일변도의 一方的 強要뿐이고…。 이 모두가 大學에 갓 들어온 學生에게 안겨주는 실망의 선물이다.

우선 이들에게는 大學과 敎授 그리고 先輩가 후원하고 권장하는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집단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집단 활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선배를 통해서 大學과 大學生活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大學生의 민주적 소양이 쌓이게 되며 장차 지도자로서의 材木으로 成長되어 간다.

#### 4. 集團活動 프로그램과 方案의 例示

첫째, 餘暇善用的 성격을 가진 集團活動을 권장한다.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능한 支援을 해준다. 집단의 종류는 多樣할수록 좋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學生들은 學習의 필수적 기초인 關心을 啓發하게 되고, 모방이 아닌 창조적 경험을 하며 社會的 態度를 발전시키고, 즐거움의 出處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며 욕구 불만을 해소하게 된다. 學生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學校나 교수는 협조자와 중개자의 역할만 수행하며 간섭과 참견은 일체 금물이다.

둘째, 學校는 시설, 도구, 장비 등을 지원하여 必要한 정보도 제공하고 소개와 알선도 한다. 특히 씨름 룰의 충분한 확보와 學校 所有의 야영장을 건설·확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씨

클이 연합하여 치루는 行旅나 축제 또는 운동 대회에 대하여 學校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 청소년 단체, 시설, 프로그램, 전문적 지도자, 전문가 등 각종의 이용 가능한 資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개도 한다.

세계, 學生들의 集團活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資源을 開發하고 이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에 적극적이 된다. 軍의 장비와 시설은 學生들의 집단 활동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자원이다. 大企業體나 은행, 언론 기관, 산업 시설, 기업체 연합회(全經聯이나 商工會議所) 등은 學生들의 關心과 흥미 그리고 취업과 관계되는 집단 활동을 직·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大學村을 만들기 위해 當局의 협조를 구하고 對地域社會 奉仕를 위해서 區나 洞과 접촉하는 일도 있다.

네째, 學校當局이 직접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個人的 理由로 도움을 받으러 오는 學生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學生의 必要에 적응하는 서비스를 집단 활동을 통해 제공한다. 심리 상담도 될 수 있고 복지 서비스도 될 수 있으며 學習 機會의 提供도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가 직접 지도를 맡아야 한다.

② 방학 기간에 定期的 캠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教授가 지도에 임한다. 自然保護, 수영과 같은 體育活動, 명승지 순례, 농촌이나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의 워커 캠프 등이 예가 된다. 이때 프로그램은 手段이지 目的은 아니다.

開發途上國이나 未開發國家에서 봉사 활동을 할 집단을 조직·운영한다. 우리나라 企業體가 진출하고 있는 國家를 1차적인 대상국으로 삼는다. 이들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 방학 동안에 현지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현지 파견을 전후하여 준비 및 연구 모임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③ 집단 활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한다. 청소년 단체나 시설 또는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學生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大學生의 부업으로서 개발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自願指導者를 배출하

는 일이기도 하다.

④ 직업 지도를 위한 단기 코스로 집단을 구성하여 學生들이 關心을 가지는 직장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각 分野의 교수가 지도를 담당하며 學生의 직업 적성, 직장의 현실 등이 활동의 中心이 된다. 1일 근무제나 주니어(junior) 프로그램 등은 學生들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된다.

⑤ 기숙사생을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가 선용의 성격을 가진 집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클럽이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는 學生들의 自治로 집단 활동이 수행되겠으나 기숙사 사감 교수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 기숙사마다의 전통이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겠으나, 기숙사 자체가 集團生活인 만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介入이 學校와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參考文獻〉

1. 김태완, "한국 대학생의 세대 의식", 청년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8.
2. 남세진,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 출판부, 1986.
3. 정원식, "한국 청년의 심리적 발달 특징", 청년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8.
4. 차재호·권영목, "지난 5년간의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의 변화: 1982 학년도부터 1986 년도까지", 학생연구,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86.
5. Grace, L. Coyle, *Group Work with American Youth*, 1950, Harper & Brother Publisher.
6. George M. Beal and Others, *Leadership and Dynamic Group Action*, 1962, Iowa State University Press.
7.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교 신입생 현황에 관한 자료집, 1982~1988.
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소년 의식구조 연구, 1985.
9. 황응연, "한국 대학생의 과의 활동", 청년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0.
10. 지동식·차배근·송순, "대학생 씨클 활동 지도 방안", 문교부, 1981.
1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현황, 1986.3~1987.2.